

##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RAMSAR COP10) 주요 협의 사항 (2008.10.29)

람사르 COP10 본 회의에서는 람사르 총회의 조직업무와 이슈 및 이전 COP 에서 제안되었던 권고사항들이 논의되었으며 세션간 활동보고 및 당사자와 옵저버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한국의 습지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특별세션이 발표되었다.

### 본회의

#### - 회의 진행 관련 사항

COP9 개최국 우간다의 환경부 장관 Maria Mutagamba 의장은 Anada Tiéga 람사르 사무총장에게 우간다 환경부의 람사르 사이트 관리 가이드북을 전달하였다. 대표단은 총회 의장 외에 교체의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비롯 이번 총회의 공식의제(COP 10 Doc.1 Rev.2) 및 의사진행절차(COP 10 Doc.2 Rev.1)를 채택하였다. COP 는 이만의 한국 환경부 장관을 COP10 의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만의 의장은 람사르 협약을 체결한 158 개국들과 1800 개 이상의 람사르 사이트가 람사르 협약 이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재차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하였다. 이의장은 COP10 의 새로운 전략 계획 완성 및 채택이 람사르 협약 발전의 진전 과정에서 선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으며 아울러 동 협약이 향후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결정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습지 인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주지하였다. 그 외 감찬우 교체의장, Rejoyce Mabudafhrasi(South Africa) 부의장, Patrick Van Klaveren(Monaco) 부의장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총회의 신입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대표는 아프리카의 Manichand Puttoo(Mauritius), 아시아의 Nirawan Pipitsombat(Thailand), 신 열대자구의 Nancy Cespedes(Chile), 북미의 Monika Herzig(Mexico), 오세아니아의 Deborah Callister (Australia) 등이며 호주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David Pritchard 가 동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COP 는 핵심 예산안 합의를 위해 재무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Herb Raffaele(U.S.)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총회에 등록된 옵저버가 승인되었다(COP10 Doc.39).

#### - 상임 위원장 보고

Paul Mafabi 상임위원장은 2006-2008 년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COP10 Doc.4) 지난 3 년 간 총 5 차례에 걸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업무와 예산 상황을 검토하고 과학 기술 검토 패널(STRP)과 통신, 교육, 참여, 인식, 감독 패널(CEPAOP)의 권고사항 보고서를 고려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습지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람사르 소규모 자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프로젝트 및 COP10 결의안 초안과

창원 선언문을 승인하였다. Mafabi 상임위원장은 각 대표단들이 다음 회기에서 다루어 질 상임위원회의 의제와 위임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람사르 협약의 재정구조, 다른 다자환경협약과의 협력 증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여러 대표들이 상임위원회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으며 상임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의장 보고

Heather Mackay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의장은 지난 3 년간의 활동을 보고하면서 람사르 협약 이행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영역 및 향후 미래에 가능한 선택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들과 도전 과제들을 강조하였다. STRP 의장은 물, 습지, 생물학적 다양성과 기후 변화가 개별적인 이슈라기 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인 문제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 연락기관(NFI)을 위한 지역적 네트워크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를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어 알제리, 인도, 이집트, 호주는 STRP 의 람사르 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검토를 지지하였고 특히 호주는 훼손된 람사르 사이트에 대한 몽트뢰 리스트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명확성을 요청하였다. 베네수엘라에 관광 개발과 관련한 문제들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현재 몽트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자국의 습지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습지와 도시화 문제를 다룰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 세계습지 NGO 대회 대표 보고

COP10 에 앞서 열렸던 세계 습지 NGO 회의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박인지씨는 정보 공유를 촉진고무하고 습지관리에 대한 최선(最善) 실행 안을 전수 하기 위한 세계습지 네트워크를 구성을 표명한 순천 NGO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협약 당사국에게 모든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습지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촉구했고 당사국, 국제기구협조자, NGO, 지역토착민 사이의 증진된 협력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람사르 지역과 같이 람사르 리스트에 포함되기에 적합하나 정부 미 승인 지역을 보호·복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요청하였고, 국제습지재건상(賞)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관습을 고려하면서 습지 지속성 보전의 필요를 드러냈고 무엇보다도 인류건강, 빈곤저감, 증가추세에 있는 생물다양성, 생태연료에 대한 결의안 초고를 마련하여 주목을 받았다.

#### - 람사르협약사무총장 보고

Anada Tiéga 람사르 사무 총장은 지난 3 년간 지구적 차원의 협약 이행 개요를 제시했다. 현재 158 개의 협약당사국 및 총 1 억 6 천 8 백만 ha 를 차지하는 1802 개의 람사르 사이트가 있는데, 특히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자원추출산업, 인류건강, 도시화와 수자원공급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습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운영조직, 과학기술, 람사르 이행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하게 떠오르는 여러 과제가 언급되었다.

또한 람사르협약에 대한 이미지와 이해도 고양, 국가적/초국가적 계획으로의 습지 통합, 사무국의 역량 증진, COP기금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사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탄소 감축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액과 같은 새로운 개념과 접근에 대한 다른 기구들과의 공동 업무성과에 대하여 검토했다.

사무총장의 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많은 당사자국들은 각 국가의 람사르 협약 이행상황 및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된 습지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려와 관심 사항에 대하여 강조했다. 브라질은 동 보고서가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사무총장의 자문 역할을 지지하는 한편 우선순위 설정은 당사자국들의 특권임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2007년 범아메리카 지역 회의에서 지역적 우선순위에 합의했음을 상기하였다. 브라질, 파라과이, 쿠바는 람사르 사무총장 보고서가 본 회의의 결과물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람사르 리스트에 대해 중국은 6개의 람사르 사이트가 보고서(COP10 Doc.7)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사무총장에 의하여 보고된 바 있는 Dalai강 보존과 관련 인간이 야기한 많은 부정적인 변화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증가된 가입국 수와 늘어나고 있는 람사르 사이트와 COP 결의안을 고려할 때에 사무국 사무국의 인적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집트는 지역회의의 조직을 포함한 활동들에 대한 감시, 사무국의 법적 지위 해결, 지중해의 문화유적과 습지의 체계화된 사례와 교환 도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집트와 아라크는 아랍당사국을 위해서 언어장벽에 대처할 것을 촉구함과 더불어, 아라크는 아랍어로 된 람사르 서비스와 정보상품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칠레는 기후변화와 습지 간의 연관성을 지지했다. 말라위는 습지관리자 네트워크에 대한 지역적 포럼을 지지했다. 일본은 사무총장보고에서 암시된 예산안 증가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한국은 습지보전에 대한 람사르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의사와 더불어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케냐는 람사르 사이트의 확장을 지지했다.

탄자니아는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CBD)사이의 시너지 강화와 더불어 세계물포럼(WWF)과 세계식량기구(FAO)와 같은 다른 지구적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번 COP10의 주제인 “건강한 습지, 건강한 사람”에 대한 주목을 요청하며 기후 변화와 습지의 관계를 비롯하여 WHO에 보고된 질병의 80%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WWF는 COP 가 당사자국들이 훼손되고 있거나 될 소지가 있는 사이트를 나타내는 데에 몬트리외 기록을 이용할 것을 장려했다. 람사르 사무총장의 보고는 Anada Tiéga 사무총장의 설명 후 채택되었다.

**특별발표: “한국의 습지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부의 김지태 대표는 한국의 습지보전과 이용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11개의 람사르사이트로 지정된 습지를 포함하여 한국 지표면의 7.7퍼센트가 습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COP10 이후의 우선사항에 대하여 2012년까지 국가습지목록작성 및 동아시아 람사르 습지센터 건설, 북한과의 협력 강화, 녹색성장정책 이행 등을 강조했다. 발표는 한국의 습지보전에 관한 영상물로 마무리 되었다.

**방론(放論)**

여러 문화공연들과 함께 치러진 개회식과 28일 저녁민찬에 이어 COP10 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대표단들은 그들이 당면한 이슈들을 확인하면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습지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자원추출산업문제를 지적했고 그 중에 한 대표단은 특히 이익을 창출하는 자원채취에 대한 압력에서 습지를 보호하는 즉각적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는 격앙된 어조로 “습지 보존은 우리의 최대의 현안이다” 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간의 상호연관성등과 같은 다른 이슈들도 떠올랐다. 다수의 대표단이 수자원,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완화와 적응에 있어서 습지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다른 대표단은 바이오 연료 이슈를 지적했다. 한 대표단은 “우리는 이러한 습지의 ‘현명하지 않은 사용’에 대해 많은 의견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많은 당사국들이 추가적인 역량확충이나 지역 보호와 같은 이행지원활동에 대한 이해관계를 드러냄에 따라, 뜻밖은 예산 협상 충돌을 우려했다.

This issue of the *Earth Negotiations Bulletin* © <enb@iisd.org> is written and edited by Imran Habib Ahmad, Asheline Appleton, Ph.D., Stefan Jungcurt, Ph.D., Leila Mead, and Renata Rubian. The Digital Editor is Dan Birchall. The Editor is Pamela S. Chasek, Ph.D. <pam@iisd.org> and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is Langston James “Kimo” Goree VI <kimo@iisd.org>. The Sustaining Donors of the *Bulletin* are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DFI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ough the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CIDA), the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uropean Commission (DG-ENV), and the Italian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Land and Sea. General Support for the *Bulletin* during 2008 is provided by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overnment of Australia, the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weden, the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WAN International, Swiss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the Finn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he Japanes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 IGES), th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rough the Global Industrial and Social Progress Research Institute - GISPRI)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Funding for translation of the *Bulletin* into French has been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rancophonie (IOF). Funding for the translation of the *Bulletin* into Spanish has bee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pain. The opinions expressed in the *Bulleti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IISD or other donors. Excerpts from the *Bulletin* may be used in non-commercial publications with appropriate academic citation. For information on the *Bulletin*, including requests to provide reporting services, contact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at <kimo@iisd.org>, +1-646-536-7556 or 300 East 56th St., 11A, New York, NY 10022, USA. The ENB Team at Ramsar COP10 can be contacted by e-mail at <stefan@iisd.org>.